

외고 준비 중인 중2, 과학 공부 의미 없을까요?

중2 딸이 어학쪽에 소질이 있어서 외고 진학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과학 쪽에도 흥미가 커서 내신 기간이 아닐 때도 과학 학원에 꼭 다니고 있어요. 좋아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다니게 하고 있는데 곧 중3이 되니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외고에 갈 거라면 과학 공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_ 이세라(48·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과학보다는 어학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을 권합니다.

외고는 교육과정상 어학 관련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 특성상 어문·사회 계열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고 진학 계획이 있다면 과학 공부를 너무 깊게 하는 것은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입시멘토 임태형 대표는 “외고에서는 <통합과학>을 배운 이후에 다양한 과학탐구 과목들을 공부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다. 과학 선행을 깊게 하기보다는 내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학 과목의 실력을 다지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편이 나올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여러 학문 분야에 대한 융합적인 소양을 중요시하는 학과로 진학할 계획이 있다면 과학 공부의 의미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임 대표는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융합학부나 입학 후 전공을 결정하는 자유전공학부 등으로 진학할 계획이 있다면 어학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과학적인 소양과 실력까지 두루 갖춘 인재로 어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더라도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보라”고 덧붙입니다. @

MORE TIP

과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하고 잘한다면 자유전공학부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고려대 전공 안내서에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인문학, 사회과학)에 두루 관심이 있거나 딱 하나를 집기 어려워 진로에 대해 명확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한 가지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관한 학문을 배우고 그것들을 연관시켜 공부하고 적용시키고 싶다’면 자유전공학부에 딱 맞는 학생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수시에서 7개 전형에 지원하면 마지막 지원 대학만 취소되나요?

수시로 6개 전형만 지원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시 지원 시 6개를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원한 대학이 전부 취소되는지 아니면 접수 시간 기준 6개 초과된 대학의 지원만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_ 이진아(47·서울 동작구 상도동)

수시 지원 제한을 초과해 지원했다면 위반에 해당하는 전형은 접수가 취소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보화표준팀 관계자는 “대교협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수시 지원자의 접수 현황을 매일 추합해 지원 횟수 6회를 초과한 학생을 찾고 해당 대학에 전달한다. 만약 7개의 전형에 지원했다면 7번째 대학에 전달되고, 학생에게 확인 작업을 거쳐 해당 전형의 원서 접수가 취소된다. 보통 유웨이나 진학사 지원 사이트에서도 6회 전형을 초과하면 결제 과정에서 팝업으로 상황을 알려준다. 다만, 결제 자체를 차단하지 않아 수시 6회 제한을 위반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대교협이 6회 지원을 초과한 학생을 찾아 대학에 알리는 필터링 작업을 하지만, 지원자 본인이 수시 지원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대교협 관계자는 “만약 수시 6회 지원을 초과했는데 발견되지 않았고, 일곱 번째 지원한 대학에 합격했다면 그 대학의 합격은 무효가 된다. 지원 자격이 없는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섯 번째까지 접수한 대학에서 합격했다면 입학은 유효하다”고 덧붙입니다. @

MORE TIP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등의 과학특성화대와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스텍은 일반대학으로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운대와 호원대와 같은 산업대학, 전문대학도 수시 6회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신속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j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